



겨울 오는데...코로나 한파에 '얼어붙은 온정'

광주·전남 나눔캠페인 목표금액 대폭 줄어...현혈도 급감 연탄 기부도 대폭 감소...취약계층 혹독한 겨울나기 우려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도 줄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는 올해 희망 나눔캠페인 목표 금액을 42억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목표액으로 잡았던 55억 200만원보다 23.5%(12억 9200만원)나 줄인 금액이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목표액을 낮춘 것이다. 광주지회의 목표액은 지난 2018년 45억7200만원으로 잡은 이래 지난해 55억 200만원으로 높였다가 올 들어 목표액을 대폭 줄여 잡았다.

전남은 더하다. 전남지회의 올해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목표액은 79억원. 지난해 목표 금액 98억 6100만원에 견주려 19.5%(19억 6100만원)

나 감축했다. 전남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액을 낮춰 잡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69억 5000만원(2014년)→79억 5000만원(2015년)→81억 7000만원(2016년)→97억 6400만원(2017년)→97억 6400만원(2018년)→98억 6100만원(2019년) 등으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목표액을 늘려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개인과 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금액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표 금액을 줄이는 게 최근 몇 년 간 없었던 일이라 공동모금회 내부에서

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매년 11월 20일 붙을 밝혔던 '사랑의 온도탑' 도 12월 1일로 예년보다 다소 늦어졌다.

◇현혈자도 급감=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혈자도 급감, 혈액도 부족한 상황이다.

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광주·전남지역 현혈자 수는 15만 862명. 지난해 같은 기간 현혈자 17만 1767명에 견주 12.2%나 줄었다. 현혈자가 줄면서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을 밑돌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혈액보유량은 이날 기준으로 4.1일분만 남아있는 상태다. 혈액수급 위기단계(4단계) 중 관심단계(5일 미만) 다.

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현혈 기피 현상 등으로 단체 현혈자가 지난해보다 31%이상 감소 했다"고 말했다.

◇연탄 불씨도 꺼질까=기부 한파로 인한 연탄 불씨도 사그라들고 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공급을 맡고 있는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평소 이맘때면 개인과 법인 등 각계에서 기부된 연탄은 대략 4만 장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1만 5000장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기부된 연탄은 5만장 가량으로, 광주·전남지역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수량이었다.

올해는 기부 문의마저 뜸 끊겨 추세라면 최소 수량 확보도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 기업 모두 기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좀 더 어려운 주위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복마전' 교육공무원 57명 무더기 적발

뇌물 받고 부당한 계약 지시 등 브로커 10명·납품업체 2명도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브로커, 납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각급 학교에는 계약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교육 기자재가 납품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구속된 반면, 뇌물을 준 브로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비판도 제기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는 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8명(2명 구속)과 부당한 계약을 지시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무원 4명(불구속) 등 1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공무원에게 정탁성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등 10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

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2018년 전남 지역 학교 62곳에 압막 롤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대표인 A(47)씨와 B(46)씨는 28억원 상당의 롤스크린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업체들에게 1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등은 이 가운데 1억원 가량을 교육 공무원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현금이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리낌없이 금품을 주고 받았다.

경찰은 또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지만 브로커·업체 등에 납품 관련, 명절 선물 등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45명을 적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로비가 발생하는 등 비리를 낳고 있다"며 "관급 계약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감사원 등에 통보하고 공공분야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간부가 또 음주운전

경찰 중간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안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전날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위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50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를 하기 위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선별진료소 출입 통제 5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을 추위에서 보호할 임시 시설이 설치됐다. 북구는 겨울철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조립식 임시 공간을 설치하고, 난로를 비치하는 등 활동대책을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정원 기록물 20건 5·18진상조사위에 추가 제공

80위원회 활동 계획서·사진 등

국정원은 5일 "전남 5·18 기록물 20건을 추가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45건 3389쪽 분량을 처음 제공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2차 지원 자료는 당시 해외 공관들의 정부 비상계엄 조치 정당성 홍보 활동 기록물, '광주사태 실상 홍보 준비위'(80위원회) 활동 계획서 등 19건 588쪽과 5·18 관련 사진 53장을 스캔한 파일 1건이다.

이 중에는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5·18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계획과 해외 언론의 '북한 개입설' 보도를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홍보 활동 기록물은 조사위 과제 중 하나인 당시 정부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은 "1차 자료 지원 때 80개의 키워드를 입력해 5·18 관련 기록물을 검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980~85년 5·18 홍보 관련 기록물을 검색해 지원했다"며 "앞으로 키워드를 확대해가며 추가 검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5·18 진상 규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라는 박지원 원장의 뜻에 따라 조사위와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 관련 기록물을 지속 발굴하여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검색 T/F"를 구성해서 조사위와 긴밀하게 소통해 자료 발굴 및 제공을 협의했고, 앞으로도 5·18 조사위가 제시한 키워드를 계속 검색하는 등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